



대안가정

통권18호 (2007년 여름/계간) <http://www.daeanhome.org>

- 2. 스케치 /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큰캠프
- 5. 자원봉사수기 / 대안가정 캠프와 나
- 6. 대안가정 일기 (6가정 발췌)
- 9. 스케치 / MBTI로 들여다 본 우리가족
- 10. 그림일기
- 11. 상담원 수첩 / 육아는 겸손을 낳는다
- 12. 기획 / 서준이의 집은 어디입니까?
- 13. 이별 / 유현이와 함께 한 7년을 되돌아보며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내역 및 재정
- 16. 후원안내, 대안가정알리미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편/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7. 9. 5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2007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 캠프 -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영주청소년수련원에서 아동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라는 슬로건 아래 대안가정 아동의 가정위탁이해를 위한 교육을 총 2회의 캠프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대안가정 아동(위탁아동 및 친자)과 자원활동가 34여명이 함께 한 이번 캠프는 지난 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자원활동가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놀기도 엄청 열심히 놀았구요^^*



1



드디어 출발~!!
영두로 향하는 버스안에..



2

친해지기 시간~
신나는 노래와 율동도 배우고,
특별로 만든 깃발도 자랑합니다



현연영색 - 약초로 영색한 멋스러운 붉은빛깔~
웃도, 눈도, 마음도^^ 알록달록 물들었지요.

4



3

가족이란 뭘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해 알아봤어요~

5



반편견교육
'정남도 비정남도
없어요!
인형극 '토금다른 형
개구리 이야기'
감상 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6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께 드릴 마음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8



목공예체험 - 돛대, 나무목걸이,
풀피리를 만들었습니다.



7



공동체 놀이 시간~
포인 눈 풀기, 통이탐 쌓기



9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물놀이!!
누영당이 무서운 막대들은
빨간 고무다라이~



10

유은미 선생님과 함께한 심리극
'마음을 나누어요!' 대안가정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가지 감정과
독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



마지막 밤! 비록 사진은 못 찍었지만,
당기다람, 불꽃놀이랑 캠프파이어~
정말 신나는 밤이었어요^^



2007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 프로그램 들여다보기 —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큰캠프에서는 대안가정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흥미'와 '유익'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했답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가족이란 뭘까?

캠프를 시작하면서 아이들 머리와 마음속에는 '가족'의 개념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이용해 아이들과 짧은 대화를 가진 후, 조별로 협동화 그리기를 했답니다. 아이들이 표현한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시죠?



정상도 비정상도 없어요!



엄마말에 반대로만 행동하던 청개구리아 이야기. 다들 아시죠? 청개구리아이야기를 패러디한 '조금 다른 청개구리아이야기'를 인형극 공연을 했답니다. 마을에서 혼자만 생김새가 달랐던 황개구리를 둘러싼 사건, 사고(?)를 통해 '다름'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훈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주입하지 말라는 자문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뜻에 맞는 배움을 얻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 인형극 준비를 자문해주신 이태분선생님(계명대학교 부설유치원) 감사합니다.



마음을 나누어요~

대안가정 가족으로 살면서 아이들의 가슴 속엔 어떤 마음들이 자리잡고 있을까요. 미술치료사 윤은미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속내를 열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탁아동인 동생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는 대안가정 친자, 대안가정이 좋지만 그래도 사실은 엄마와 살고 싶다는 위탁아동, 그리고 대안가정 부모와 친부모의 입장... 각자의 마음을 터놓고 재연해보았습니다.



* 대안가정 캠프와 나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지훈

한지훈 학생은 2006년부터 대안가정 아동교육캠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열혈 자원봉사자입니다. 대안가정 캠프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안가정 아동교육캠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작년 5월이었다. 학과 선배가 자원봉사를 제의했고 별생각 없이 한다고 했다. 사실 봉사활동의 의미보다는 선배들이나 친구들과 놀러간다는 생각이었다. 선생님께서 사전교육을 해주셨지만 당시에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었던 나였기에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안계셔서 보통 아이들과 다를 것이라는 약간의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2006년 작은 캠프를 떠나게 되었다. 처음엔 아이들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친해져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좀 어색했다. 하지만 어색한 동작으로 울동도 따라하고 아이들과 함께 토닥거리기도 하다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 여느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캠프였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운 기분이었다.

그렇게 첫 캠프를 계기로 사회복지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히 8월에 있었던 큰 캠프도 참여하게 되었다. 작은 캠프 경험도 있고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참석한 큰 캠프. 하지만 이월 수개! 겨우 3개월 남짓한 시간에 부쩍 성장한 아이들 앞에서 자신감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같이 장난치다가도 사소한일로 다투고 울고, 달래 놓으면 또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울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 정

말 2박 3일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작은 캠프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인형극과 시청각자료를 이용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캠프 파이어와 운동회 같은 시간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두 번의 캠프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주었겠지만 나에게도 큰 변화를 주었다. 심리학자를 꿈꾸던 나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 2007년 캠프를 떠나게 되었다. 역시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발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번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짜여 졌고 작년과는 다르게 일찍부터 사전교육을 시작하여 많은 것을 준비했다. 인형극 '조금 다른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역할극 '마음을 나누어요'를 통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도해나가면 점점 더 좋은 캠프가 되어갈 것이다. 물론 아무리 변해도 아이들이 개구쟁이라는 사실과 울동하는 것이 축스럽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말이다.

매번 캠프를 준비하시며 많은 고민을 하실 김명희 사무국장님과 정민경 선생님, 장효점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다. 대안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앞으로도 대안가정 교육캠프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화이팅!!



하연이네

2007. 6. 15 / 잡고 걸어요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잡고 서는것도 잘해요. 작은 식탁을 잡고 서서 빙빙 돌기도 하고, 어느 순간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언니랑 놀고 있어요. 식사 시간마다 뒤통서 보행기에 태워요. 언니 밥그릇에 손 집어 넣고, 반찬 만지고.... 행복한 비명이죠 어느 순간 나팔도 불고, 빨대컵도 잘 빨고... 보행기를 타고 이방 지방 넘나드는 걸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이렇게 한가지씩 익힐 때마다 고마워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안심도 되고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하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기도해 주셔서....

2007. 6. 25 / 쓱쓱크는 하연이...^^

언제 부턴가 미끄럼 계단을 올라가고... 또 미끄러지기까지^^ 그네도 양손으로 꼭잡고 타고.. 물론 안전벨

2007. 7. 1 / 가벼운 산책

날이 흐리고 보슬비가 조금씩 뿌리네요. 아이들이 따분하다고 해서 가까운 연개소문 촬영지에 다녀왔지요. 덤지 않아서 아주 즐거운 산책이었답니다. 문경에 가면 하루코스로 구경할 것들이 아주 많아요. 왕건 촬영장, 석탄 박물관, 철로 자전거, 수상자전거.. 올해는 지나갔지만 찻사발 축제 때 가면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하지요. 아이들도 아주 좋아했구요. 포동이(진술 애칭)도 아주 즐거운 하루였답니다.

2007. 7. 7 / 바닷가에서

해마다 찾는 바다지만 갈 때마다 새롭다. 이곳은 울진 후정 해수욕장. 조용한 곳이라 우리가족은 3년째 이곳을 다녀갔다. 작년에는 셋째아이가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나비처럼 물위를 뛰어 다니며 제일 잘 논다. 진술이도 역시 처음 보는 바다가 무서운가 보다. 오페들이 물속에서 놀 때 모래장난



트를 하죠. 시소는 식은 죽 먹기.. 책상위는 단숨에, 보행기도 조금만 기다리면 혼자탈 수 있어요. 지금은 위에 올라가기만 성공!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웃는 모습은 명품입니다.

2007. 8. 13 / 외출...

어젠 롯데월드로 외출을 시도... 유모차에, 가방에, 무시시한 눈을 비비며 새벽에 출발!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고 9시경 도착지에 도착..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고,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연이도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롯데월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풍선비행 기차는 월드모노레일이 처음인 듯... 그 다음 오전시간은 폭~ 잤습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 양손을 흔들며 가며 좋아하고, 잘 웃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우리가 웃으면 같이 웃고 연신 고래를 흔들며 웃어요. 앞에 있는 모르는 사람도 쿡쿡 찌르고... 모두들 같이 즐거워 했습니다. 오는 차 안에서 쿵~쿵~. 집에 도착 후 씻고 우유먹고 다시 잠속으로~.... 아쉽게도 카메라가 탈이 나서 사진은 거의 없음... 우리들의 눈 속에 다 담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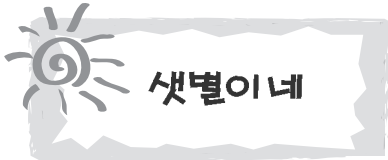


진술이네

만 실컷 했다. 바다바람 살랑살랑 맞으면서 모래찹질 하고 모래 맛도 보고 머리에 모래를 다 뿌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소박한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부부는 오늘 참 행복했다.

2007. 8. 27 / 계곡에서

지난 토요일(25일) 무더위를 식히려고 계곡을 찾았다. 집에서 물만 보면 신이 나는 녀석이 무서워서 엄마품에서 떨어질려고 하지않는다. 겨우 품에서 떨어져서 물에 발을 담그니... "아~이 차가워" 그렇지만 시원한 물가에서 먹는 수박맛을 아는지 열심히 먹고 있네.



2007. 5. 31 / 치맛바람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떡집 딸내미가 떡을 해와서 탐구반 친구가 나눠먹었다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소라개” 를 가지고와서 친구들에게 보여 줬단다. “부럽나?” 하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지만 부러운 눈치다. “셋별이도 뭘 갖고 가고싶냐” 하니 없다한다. “있으면 큰엄마가 보내줄라 했는데..” 하니, “빵을 들고 가서 온 친구가 다 나눠먹고 싶단다. 나누어먹으면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내세워주니 제 편에는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워하다 말고 온 어린이집 친구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빵을 사주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하니 기분 좋게 “혜...” 거리며 웃는다. 새삼스레 젊은 엄마들 치맛바람 따라가



려하니 숨차다. 그래도 월요일 빵을 가득사서 탐구반 친구들 앞에서 박셋별!! 확실하게 기를 세워줘야겠다.

2007. 6. 5 / 금족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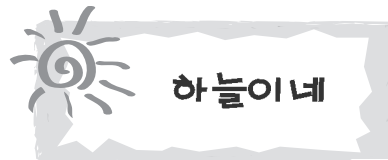
어린이날 받은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타는 박셋별 양. 어디든지 씩씩 신나게 타는 셋별이에게 매일 당부하는 큰엄마의 말. 여기도 가지마라, 저기도 가지마라, 차조심해라 등등...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은 가지 말라는 위험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딱!! 걸렸다. 벌을 받아야했다. 셋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금족령~ 일주일간 어린이집 갔다 와서 이 좋은날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 피가 끓는 7살배기 셋별이에게는 아주 큰 벌이다. 며칠은 지겨워서 주리를 틀더니 오늘은 작전을 바꾸어 날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눔아 텔레비즘 보자” 해도 그저 “혜혜” 거리며 웃는다. 내일은 국경일이라 어린이집도 안가는데 금족령 풀어주고 밖으로 내보내야 될까나?

2007. 6. 8 / 하늘이와 줄리

줄리가 뭘까요? 하늘이 친구 코카스파니엘 이름인데, 로미의 애인이랍니다. 로미는 어디 있냐구요? 합천에 있습니다. 어서 만나게 해 줘야 할 텐데 ㅎㅎㅎ 어제는 하늘이 두번째 맞이하는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좋기만 하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냈답니다. 진짜 생일잔치는 이번 토요일 교회에서 한답니다. 놀러오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번 달에 있는 원아들을 한테 몰아서 한다고 이달 초에 통신문에 있군요. 어린이 집에서 인기 독차지 한답니다. 하늘이는 아침에 5시 기상-아이구 못말려, 교회에 올라가서(놀러가서)가 맞겠죠? 기도(?)하고-제법 폼납니다 마당에서 신나게 텃밭에서 일(?)하고-다 망쳐놓습니다. 줄리하고 해피 응아(?) 치우고-소리만 큼니다. 여기저기 온 집안을 치우고(?)-쓸어놓으면 다시 어지럽습니다. 근면, 성실, 부지런한 새나라 젊은이랍니다.

2007. 8. 5 / 하늘이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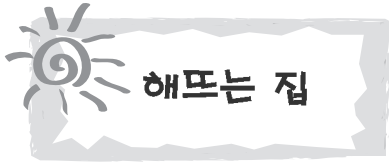
아침 6시 기상 새나라의 어린이
두유 한잔 꿀꺽 바로 응아~ 시원하다.
그래도 샤워는 해야지-곧바로 샤워이때 아직 엄마는 꿈나라에서 길을 잃고 있다. 모든 일은 아빠차지다)



다음, EBS TV 를 통한 과외학습
영어를 통한 미래 준비 : 요즘 영어는 기본이니까(하늘이 생각)
어린이 프로를 통한 시청각 교육 (요즘은 EQ 교육이 중요하니까)
요즘 시청각하는 재미가 솔솔하다.
중간중간 밖에 나가 해피하고 줄리가 잘 있나살판다.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오후에는 물놀이 시간
신난다. 끝.

2007. 8. 20 / 휴가추억

땅 끝마을 가는 길에 보성녹차 밭에 들렀는데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Victory 를 손가락으로 만들려고 애쓰답니다. 자, 화이팅! 야생곤충 전시관에 들렀는데, 하늘이 노는 풀(?)을 봐야하는데... 상상에 맡깁니다. ㅎㅎㅎ 요즘, 하늘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따라합니다. 곧 말도 잘하겠죠? 하늘이는 요즘 때도 잘 부럽답니다.



2007. 7. 17 / 유현이 정말 요란하게 중국으로 갔다

“숙모 버스표가 없어요” 유현이가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깬다. 어제 아침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발매받은 인천행 버스표를 잃어버렸단다. 시계를 보니 6시다.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는 인천행 버스를 제대로 타야 중국행 배를 타는데 지장이 없는데... 터미널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하자 표가 없으면 다시 끊어야 한단다. 일단 애는 중국에 보내야겠기에 똑같은 좌석을 다시 결제해서 표를 끊었다. 표를 건네주니 그 와중에 유현이 입이 함박만큼 벌어진다. “너 지금 웃음이 나와. 그렇게 정신 빼놓고 다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돌아올지 모르겠다.” 소리를 껍 질렀더니 움츠러드는 시늉은 하는데 좋은 건 어쩔 수 없나보다. 집에 오니 아침부터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간 듯 멍하다. 이제 두 번

2007. 6. 25 / 누나의 사랑

누나랑 나이차이가 많아서 엄마가 바쁠 때 누나가 목욕도 시켜주지요. 며칠 전 엄마가 혹시 일찍 세상 뜨면 어떡하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네요. 이다음 오빠 올케를 얻게 되어도, 함께 한 세월이 없기 때문에 올케는 어려울거고 자기가 키우는 게 가장 나을거라는 얘기를 해서 감동 했었습니다. 오빠도 나름대로 자기가 잘 돼야만 어진이도 잘 키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늦둥이라도 안심이 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지 만요.

2007. 7. 26 / 보람

어진이보다 먼저 왔던 아이가 있었다. 21개월에 와서 여섯살까지 있다가 할아버지가 오시는 바람에 가게 됐다. 어진이랑도 한 6개월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아홉 살... 아직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돼서 외가에서 크고 있다. 천방지축 못생



지불한 인천행 고속버스표 비용을 어떻게 환불받는지 고민 좀 해야겠다.

2007. 8. 5 / 유현이 외가 식구를 만나다

어제 유현이 외가 식구들을 만났다. 유현이를 첫 대면한 이모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했고, 유현이는 어색한 듯 그렇게 해후를 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그 동안 이 아저씨, 아줌마가 니 키우느라고 수고하셨다” 뭐 이런 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참 기분이 묘했다. 혜성은 자꾸 보채고, 집에 혜진이 혼자 두고 온데다, 캠ป์에서 돌아올 혜윤이 때문에 빨리 일어서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유현이랑 외가식구들이 잘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하고 왔다. 7월 31일 보름간의 중국여행을 다녀온 유현이에게 곧 외가 식구들을 만날텐데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생각을 물었으나 우리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님 자신에게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이래 저래 자꾸만 마음이 공허해진다.



기고... 그럼에도 우리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 머리도 좋은듯해서... 무주 시골에서 그냥 막 크기엔 참 아까운 아이. 아이를 보내고 많이 울었었다. 지금도 방학이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저희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올해는 누나들 공부문제도 있고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실 시간도 없고 해서 겨울 방학에 올라오기로 했다. 우리 어진이 중민이 형아 안 온다고 너무 울어서 마음이 짠했는데... 거기 할머니께서 늘 잊지 않으시고 농사지은 걸 가끔씩 보내셔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가난한 농촌 살림에 팔아서 쓰시지. 택배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렇게 보내셔서... 받으면서도 보람이 되기도 하지만 늘 마음이 아프다. 좀 잘 살아서,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내 보람도 되는데...

‘MBTI로 들여다 본 우리가족’

6월 25일, 대안가정 심화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대해 공부해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이상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보기식으로 라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다소 무리를 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공평동 카페 DILL~
다닥 다닥 사이좋게 둘러앉았습니다.



우선, MBTI 검사를 시작합니다. 진지한 모습이 꼭 시험시간 같죠^^



MBTI 전문강사인 장정주 선생님의 지도로 진행됩니다.
MBTI 성격유형은 16가지로 나뉘지만,
인원이 적은 관계로 대표유형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같은 유형들 간의 토론 시간! 차분하고 조용한 IF형과 시골벽적인 ET유형~
각기 모여 앉으니 서로 다른 유형간의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유형별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나와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움과 놀라움을 함께 가집니다.



강사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유형별 분석이 공감이 짝 짝 갑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성격유형을 통해
우리 가족을 다시 바라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일기



순심여고 학생들이 기관방문

8월 13일, 왜관순심여고 3학년 학생들이 우루루(약 15명) 기관방문을 왔습니다.

나눔공동체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합니다. 상큼 발랄 여고생들~ 하지만... 상담원들 눈에 예비대안가정 부모로만 보이네요 ><



예린(7세, 여) - 대안가정 가족이 되었어요!

예린이는 예린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가정으로 위탁되었습니다.

대안가정 큰아빠, 큰엄마는 현관에 들어서서 예린이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셨고, 예린이도 큰아빠에게 덤뽀 안겼답니다. 대안가정에서 예린이의 자리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예감이 팍팍!! 들었지요. ㅋㅋ 아들 둘만 키우신 큰엄마는 머리 묶는 것부터 살짝 걱정이라고 하셨지만, 예린이로 인해 딸키우는 재미를 새삼 느끼시지 않을까요~

친가정에 다녀왔어요^^

- 아연, 혜원

여름을 맞아, 혜원도 아연이도 친가정에 다녀왔습니다. 혜원이는 아빠랑 수영장에 물놀이도 다녀오고, 엄청 신나게 놀다왔네요.

아연이는 첫돌을 친가정에서 보내고 왔답니다. 선물도, 축복도 가득 받고 돌아왔습니다~



육아는 겸손을 낳는다



장효점 상담원

캠ป์ 준비모임을 하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캠ป์에 임하는 자세’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나 전달법’에 관한 원고까지 텀으로 안겨주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권위 있는 통제를 부탁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틀 후 캠ป์가 시작되었을 때, 전제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요구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미처 대구를 빠져 나오기도 전에 말이예요.

2박 3일간 저의 행적을 되짚어 보자면... 아이들에게 최소 25회 화를 냈고, 그 중 10여회 가량은 큰소리로 ‘안돼!, 이리와!, 하지마!’라고 욕박질러 명령했구요. 여기저기에서 소동을 빚어내는 말썽쟁이 녀석에겐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 한 대 콧 쥐어박아주고 싶은 심정을 다스리느라 혼이 났답니다. 단 사흘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가식도 자기관리(?)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 라디오 사연 중에 ‘난 아이를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아이가 정말 정말 싫어졌다’고 하는 걸 듣고 웃었는데... 그 심정도 웬지 알 듯 했습니다.

어이구~ 자원봉사자들한테 ‘나 전달법’ 어찌고 하지나 말지... 캠ป์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생각하니 내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요 녀석들을 매일 돌보시는 대안가정 부모님들의 노고가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덕분에 몇 번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를 연발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인사를 전하기도 했지요. 캠ป์를 마치고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부모는 위대하다!’입니다. ^^;

사실 제겐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부모가 되리라는 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몇 모르던 시절엔 결의만큼이나 굳은 자신감도 있었구요. 꽃과 별이 그렇듯이 모든 아이들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육아 전선에 뛰어들 시기가 코앞에 닥친 지금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진실에 눈이 뜨였습니다. 아무리 예쁜 아이도 때로는 밉살맞고, 때려주고 싶고,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진실... ^^;

얼마 전 읽은 글에서 ‘셋째 아이까지 키우고 있지만, 갈수록 육아는 겸손을 낳는다’라는 한 어머니의 고백(?)을 본 적이 있어요. 애도 안 키워본 처자가 그 말이 어찌나 공감되던지요. 벌써부터 상상속의 육아에서 그 겸손을 배우는 듯 합니다. 내가 원하는대로 계획한대로, 한 생명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라줄 것이라 믿다니... 참 주제 넘었지요.

좋은 부모, 아니 나쁘지 않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인지, 솔직히 철없는 제겐 아직도 엄두가 안 납니다. 아~ 매일같이 어지르고, 시끄럽게 장난치고, 간죽거리며 내 인내의 한계를 확인하게 하는 작은 녀석을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발꿈치만 따라가도, 우리 대안가정 부모님들 반만 따라가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휴~ 아무래도 결혼은 몇 년 더 기다려야 할까 봅니다. ^^

서준이의 집은 어디입니까?

- 김명희 사무국장

“재판이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서...”

서준이네(가명/6세, 남) 대안가정 어머니였다.

2007년 9월 5일, 서준이의 ‘친생자부존재확인’을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현재 호적에 명시된 서준이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해 열리는 재판이다.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자문변호사인 정현수변호사사무실에서 이 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9월 5일 재판에서 판사는 출생신고 당시 신고인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명령하였다. 출생신고를 한 동사무소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후 2차 재판은 10월 4일 열린다.

서준이는 2003년 9월 16일 대안가정에 위탁되었다. 위탁 당시 생후 16개월이던 서준이는 지금 우리 나이로 6살이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서준이는 위탁 이후 한 번도 친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2005년 8월 친부의 군복무(방위산업체 근무)가 끝날 무렵부터 여러 차례 서준이와의 만남을 주선했지만, 그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며 자꾸만 미루곤 했다. 그 즈음 모 방송사에서 미혼부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어 그를 연결해 주었고, 어떤 일인지 그는 취재에 응했다. 하지만 심리적 부담 때문인지 안면마비가 와서 촬영이 중단되었고 그의 촬영분은 방영되지 않았다.

2007년 4월 동일한 방송사에서 다시 서준이 사례를 취재하고 싶어 했다. 당시 오랫동안 친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위탁 이후 장기간 귀가가 안되거나 불투명한 아동이 입양대상아동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장치’에 대해 조명한다기에 사무국이나 대안가정이나 촬영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리고 촬영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서준이의 친부가 ‘자신은 친부가 아니며 호적만 빌려

주었다’고 한 것이다. 제작진을 통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친부가 양육을 기피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일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결과 그가 친부가 아님이 확인 되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대안가정 부모님은 서준이를 입양하시겠다고 했다. 사실 친부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준이 입양 문제를 이야기 해왔었다. 하지만 현행 입양절차상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친부와 연락이 닿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친부가 아니란다. 서준이는 입양될 수 있을까?

정현수 변호사와 촬영팀의 협조를 받아 우리는 서준이가 입양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호적상의 서준이 부모가 친부모가 아님을 인정받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하기로 했다.

5월 17일, 호적상의 서준이 부모 양쪽과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정현수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의뢰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양쪽 부모는 유전자감식에 동의했다. 재판결과 친생자부존재확인이 되면 서준이는 법적으로 고아가 된다. 현재로서는 재판후 아동이 고아가 되면 입양시설에 입소하여 6개월간 친생부모를 찾는 공고를 내고 그때까지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할 수 있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하지만 대안가정 부모님은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잘 참아내고 있다.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임을 알고 있다.

친권! 서준이의 친권자는 누구인가. 누가 과연 서준이의 부모인가. 서준이의 집은 어디인가.

유현이와 함께한 7년을 되돌아보며

- 김명희 사무국장

지난 7년간 함께 살아온 유현이를 보냈다. 초등학교 4학년 가을 처음 만난 유현이는 무표정한 얼굴에 갸파르고 조그만 여자아이였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집을 떠나는 유현이는 날씬한 몸매를 한껏 자랑하는 예쁜 숙녀가 되어 있었다. “섭섭해서 우짜노. 괜찮나. 그래도 친척이 있었나니 다행이네. 잘 살겠지...” 유현이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지인들의 걱정스런 위로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오히려 “섭섭하기는... 훌기분 하구만..”하고 응대했다.

1톤 트럭 한가득 아이의 짐을 실어 보내고 간결하게 정리된 집안이 상쾌하게도 느껴졌고, 아이로 인한 마음의 부담을 날려 보낸 후의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사실 아이를 보내고 나서는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괜찮았다. 오히려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2001년 11월 20일,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오면서 우리 부부는 ‘이제 이 아이는 평생 우리가 돌봐야 하는구나!’ 각오를 했었다. 당시 유현이는 부모가 사망하고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유현이가 우리집으로 오던 날 양로원으로 가신 할머니가 1년 후 돌아가시면서 유현이는 그야말로 천애고아가 되었다.

올해 2월 말,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진학한 유현이가 기숙사에 입소한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 한 분이 집으로 찾아왔다. 유현이 외할아버지였다.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롭고 적적해서 손녀딸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수소문하여 찾았다고 한다. 유현이가 외할아버지와 살게 된다면 어렵게 진학한 대안학교를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이미

입학이 완료된 시점이어서 학교를 옮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장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여름방학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로 했다.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유현이는 보름동안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드디어 외가식구들을 만났다. 천애고아인줄 알았던 유현이에게는 외할아버지 외에 이모 세분과 외삼촌 한분이 있었고, 그분들 모두 우리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 유현이를 며칠간 외가에 머물게 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기분이 묘했다.

유현이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가고 있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상담원들이 상담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큰이모가 유현이를 맡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유현이 학교문제도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걸 유현이가 강력히 원하는 유일한 부분이기도 했다.

유현이 외가식구들에 대한 낯설음과 거부감도 모든 상황이 정리된 지금은 다 사라졌다. 몇 차례 만나면서 ‘저 분들 역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헤아려지기 시작했고, 어려운 형편에 다 자란 조카를 품어 안은 큰이모에게는 연민과 미안함마저 생겨났다. 유현이 큰이모와 나는 앞으로 같은 대안가정 부모로서 만남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또 유현이의 위탁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지지자로서 그들 곁에 머물 것이다.

이제 유현이는 외가식구들 품으로 갔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쯤이면 정말 독립을 해야 할 것이다. 부디 유현이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상담현황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 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 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4월	6	6	5	19	3	-	4	1	44	-	1	2	
5월	3	10	6	11	5	-	6	12	53	1	4	3	
6월	4	18	3	15	-	-	4	1	45	1	1	1	
분기계	13	34	14	45	8	-	14	14	142	2	6	6	

□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전화상담	웹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4월	41	1	-	1	1	44
5월	46	-	2	2	3	53
6월	40	-	2	2	1	45
분기계	127	1	4	5	5	142

■ 본부소식

· 심화부모교육 1회차 'MBTI로 들여다본 우리가족'

6월 25일, 올해 첫 번째 심화부모교육을 가졌습니다.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대해 공부해 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2차 교육은 오는 9월 3일, '미술치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캠프 다녀왔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안가정 아동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동눈높이에 맞춘 놀이와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작은캠프는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순심여고 학생 기관방문

8월 13일, 순심여고 3학년 학생 15명이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니만큼 쉽게 설명하고자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가정을 아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 아이들 소식

· 아빠와 만났어요 - 혜원(5세, 여)

6월 12일과 8월 2일 두 번에 걸쳐 혜원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는 혜원의의

친가정 귀가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가정 부모님의 깊은 기도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 합니다.

· 첫 돌을 친가정에서 보냈습니다 - 하연(13개월, 여)

7월 25일에 첫돌이 된 하연이가 일주일간 친가정에서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아빠와 할머니는 물론이고 하연이를 엄마처럼 키워왔던 고모도 휴가를 내어 하연이를 오셨다죠. 대안가정에 돌아가서는 두 번째(?) 첫돌 파티를 가졌더니, 우리 하연이 첫돌은 서운하지 않게 보냈습니다^^

· 방학을 맞아 친가정에 다녀왔습니다 - 성민(8세, 남)

여름방학을 맞이한 성민이가 7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친가정에 다녀왔습니다. 엄마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즐겁게 지내다 왔다고 하네요. 친가정 귀가를 앞두고 있는 성민이에게 적응을 위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 친인척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 유현(17세, 여)

헤뜨는집 가족으로 7년째 생활하던 유현이가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외가 친척을 만났습니다. 여러모로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친인척위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8월 18일 이모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유현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 대안가정을 찾았어요 - 예린(7세, 여)

이미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던 엄마는 한달 전에 동생을 출산했습니다. 예린이와 동생이 위탁되면 파산신청과 함께 공단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예린이는 엄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댁을 대안가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예린이와 친가정, 그리고 대안가정 가족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박선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대안학교에 진학한 유현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중국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유현이 아버지 실종신고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주신 박선아 변호사께서 여행경비로 5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비가 부족해 고민하던 유현이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신한은행 : 100-018-271549

☆ 자동이체 안내

• 대구은행은 사무국으로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 그 외 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세요

(인터넷 뱅킹 또는 지점방문)

지로로 납부하시려면

1.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로 은행에서 납부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지로번호 : 6307008)

대안가정이 궁금하세요? 불러만 주세요!

찾아가는 『대안가정 알리미』

대안가정?? 좋은일 같은데, 막상 내가 도울 건 없는 것 같으시다고요?

대안가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

대안가정운동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단 한명도 좋고, 수 백명도 좋습니다.

계모임, 동창회, 동아리 등 각종 소모임 설명회에서

학교, 교회, 기업 등 대규모 강연까지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동료,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 알리미를 부르시면 대안가정부모를 위한 지침서 「대안가정 길잡이」를 드립니다.

* 문의 : ☎ 053-628-2592

